

무안공항 사고기 탑승자 가족 “모든 게 꿈이었으면”

공항 주변 목격자 당시 상황 전해 “충돌 규모 커 대형 인명피해 직감” “대부분 사망” 발표 바다 주저앉아 “난 앞으로 어떻게 살라고…” 통곡

무안국제공항에 진입하던 제주항공 항공기가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해 대부분 탑승자가 사망하는 대형 참사가 발생했다. 사고 소식을 접한 뒤 공항으로 모여든 가족들은 깊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29일 오전 9시3분께 제주항공 7C2216편(방콕-무안)이 무안공항에 착륙하던 중 활주로를 이탈해 울타리 외벽을 충돌했다.

해당 항공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181명이 탑승해 있었으며, 이 중 2명이 구조돼 인근 병원으로 이송됐다.

사고 당시 현장을 가까이에서 목격한 주민들은 당시의 참혹한 상황을 전하며, 깊은 탄식과 함께 비극적인 사건에 대한 안타까움과 무력감을 감추지 못했다.

무안공항 인근에서 수산물을 판매하는 이근영(49)씨는 “있단 광음이 울려 퍼져 급히 밖으로 나가보니, 비행기가 올바른 착륙 방향을 벗어나 반대 방향으로 접근하고 있더라”며 “이후 비행기가 바다를 긁으며 착륙해 결국 울타리 등 구조물을 들이받고 폭발했다. 기체에서 큰 불꽃이 일고, 연기가 자욱하게 퍼졌다”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이씨는 “지상에서 충돌하기 전부터 관계당국에 문제가 접수됐던 것 같다. 사고가 나는 순간 소방 인력과 장비가 즉각 투입돼 구조 작업을 벌였다”면서 “충돌의 규모가 커 대형 인명피해를 직감했다. 이곳에서 오랫동안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비극적인 광경은 처음 목격했다”며 말을 잊지 못했다.

상인 이경희(56)씨도 “출근하자마자



항공기 사고 탑승자 가족들이 29일 무안국제공항 3층 대회의실에 마련된 대기실에서 구조 소식을 기다리고 있다.

나건호 기자



대표소리처럼 큰 소리가 나서 깜짝 놀라 밖으로 나가봤다”며 “사고 현장 인근으로 파편이 날리고 불꽃이 일어나는 것을 봤다. 당시 현장의 상황이 정말 참혹해서 오래 지켜보고 있지 못할 정도였다”고 밝혔

다. 공항 활주로 인근 사고 현장 주변으로는 기체의 부품과 파편들이 곳곳에 널브러져 있었다. 기체는 꼬리날개 부분을 제외하고는 형

체를 알아볼 수 없을 만큼 파손돼 있었으며, 충돌 후 폭발의 여파로 상당 부분이 불에 그을려 검게 변해 있었다.

사고 발생 후 수시간이 지난 시점에서도 공항 일대는 코를 찌르는 타는 냄새로 가득했다.

관계당국은 분주하게 수색·구조 작업을 진행하며, 사망사실이 확인된 탑승자들을 천으로 덮어 임시안치실로 이송했다.

공항에는 사고 소식을 접한 탑승자 가족들의 발길이 이어졌다.

이들은 떨리는 손으로 서로를 부여잡고, 로비에 설치된 TV 화면을 응시하며 반복되는 뉴스 속보에 희망의 끈을 붙잡으며, 생존 소식을 간절히 기다렸다.

휴대전화를 통해 실시간으로 상황을 확인하며, 사고기에 탑승한 가족에게 계속해서 연락을 시도하는 이들도 있었지만, 통화는 끝내 연결되지 않았다.

공항에 마련된 가족대기실에서 진행된 소방당국의 현장 브리핑에서 “총 탑승자 181명 중 구조된 2명을 제외하고 모두 사망했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소식이 전해지자, 가족들은 자리에 주저앉아 통곡하

며 충격과 슬픔을 감추지 못했다.

가족들은 탑승자 명단을 재차 확인하며 믿을 수 없다는 듯 눈물을 터뜨렸다.

신원이 미확인된 탑승자들의 생존 가능성이 희박해지자, 공항에는 탑승자 가족들의 애끓는 통곡과 눈물 섞인 한숨만이 울려 퍼졌다.

로비에 설치된 스크린에 지문 인식 등을 통해 사망사실이 확인된 탑승자 명단이 공개될 때마다 곳곳에서는 외마디 비명이 터져 나왔다.

가족들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눈물만을 쏟아냈고, 큰 충격을 이기지 못하고 실신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은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이제 난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하나. 우리 딸을 살려내라”면서 오열했다.

동생이 탑승한 40대 여성은 “지난주 동생과 가족끼리 연말 모임을 하고 새해가 되면 만나자고 약속했는데, 이런 말도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면서 “너무 갑작스러운 일이라 믿기지 않아, 이 모든 게 꿈이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렸다.

무안=윤준명 기자 junmyung.yoon@jnilbo.com

연말 맞아 여행 떠난 가족 탑승객 많아 안타까움 더해

세살 아기부터 70대 노인까지 광주·전남 시도민 탑승객 다수

무안 제주항공 여객기 추락사고와 관련해 사망자 대부분이 연말을 맞아 여행을 떠났다가 돌아오던 가족단위 탑승객이었던 것으로 추정돼 안타까움을 더하고 있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9일 오전 무안군 망운면 무안국제공항 활주로에서 외벽 담장을 충돌한 뒤 반파된 여객기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명단을 확보하고, 현장에서 수습한 희생자의 신원을 대조하고 있다.

사고가 난 여객기는 연말을 맞아 태국 3박5일 여행 상품을 이용한 가족단위 여행객이 상당수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탑승자 명단에는 좌석 배치나 성명 등으로 미뤄 가족 관계로 추정되는 승객이 다수인 것으로 알려졌다.

최연소 탑승자는 2021년생 3세 남아로 확인됐다. 20세(2004년생) 미만 미성년자 탑승객은 15명으로 유치원생부터 초·중·고 학생인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가족과 함께 사고가 난 여객기에 탑승했던 것으로 잠정 확인된다.

탑승객 명단에 적힌 연령대로 10대부터 70대까지 다양하다. 사고 여객기에는

승객 175명과 승무원 6명 등 총 181명이 타고 있었으며, 탑승객 중 173명은 한국인, 2명은 태국인이다.

무안공항은 광주와 전남 지역민이 주로 이용하고 있어 인명피해도 광주·전남지역에 집중됐을 것으로 보인다.

광주공항은 국내선만 취항하고 있어 광주에서 국제선을 이용할 수 있는 가장 가까운 국제공항이 무안이다.

여수공항 역시 국내선만 취항해 무안 등 전남 서부권은 물론 여수, 순천, 광양 등 동부권 도민들도 국제선 이용을 위해 무안공항을 찾는다.

사고 여객기 탑승자 명단에는 광주에 주소지를 둔 81명(남성 36명, 여성 45명)과 전남 주민들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파악됐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 사고 수습과 지원에 나섰다.

전남도는 유가족 전달 공무원 360명을 지정해 지원하고 무안공항과 무안 망운초등학교에는 자원봉사센터를 열었다. 또 무안스포츠파크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해 유가족들에게 숙소 등을 지원할 계획이다.

광주시는 내달 4일까지 애도 기간으로 정하고 5·18민주광장에 합동 분향소를 설치하기로 했다.

정성아 기자

사고 수습·신원 파악 지연에 가족들 ‘분통’

대표단 꾸려 요구사항 전달해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 참사로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이 관계당국에 현장 방문 등 구체적인 대응을 요구하며 항의했다.

29일 오전 9시3분께 무안국제공항에서 발생한 항공기 추락과 폭발 사고 소식을 접한 탑승자 가족들은 상황을 확인하기 위해 공항으로 모였었다.

탑승자 가족 대기실에 모인 가족들은 탑승자 수습과 신원파악 과정이 지연되면서 초조함을 감추지 못했고, 관계당국의 대응이 늦어지는 것에 대한 불만을 드러내는 이들도 많았다.

가족들은 오전부터 탑승자의 생사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 접근을 요청했으나, 해당 구역이 민간인 출입이 제한된 지역이라는 이유로 거부되기도 했다.

대기실에서 당국의 브리핑을 들은 한 중년 남성은 “어떻게 가족들에게 전달되는 소식이 뉴스보다 늦을 수가 있냐”며 “상황이 어떻게 진행되는 것인지 가족들에게 정확하게 설명을 해달라”며 울분을 토했다.

다른 남성도 “가족들은 어디에서 대기하고 있어야 하는지, 사망자 신원 확인 여



한국항공공사와 소방당국 관계자들이 29일 무안국제공항 1층 대합실에서 항공기 활주로 이탈 사고와 관련해 탑승자 가족들에게 브리핑을 하고 있다.

뉴시스

부 등도 가족들에게 곧바로 전달되지 않는다”며 분통을 터뜨렸다.

이들은 오후 3시께 탑승자 가족 대표단을 구성하고, 당국에 신속한 사고수습과 신원파악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가족대표단의 현장방문과 컨트롤 타워 구축 등에 대해서도 요구했다.

탑승자 가족 대표로 나선 A씨는 “탑승자 가족들의 요구사항을 모아 관계당국에 전달했다. 가장 중요한 것은 가족들의 사고현장 방문이다”며 “탑승자 가족들 중 소수의 대표를 꾸려 사고 수습에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 사고 현장을 살피고, 어

떻게 수습 및 조치하고 있는지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밝혔다.

이어 “탑승자 가족들이 상황을 곧바로 알 수 있는 컨트롤 타워가 부재하다.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고 공항과 항공사 관계자가 탑승자 가족 근처에 상주하게 해달라”고 덧붙였다.

가족들의 요구를 전달받은 관계당국은 10여명으로 구성된 대표단이 사고 현장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 또한, 매 시간마다 변화하는 상황에 대해 브리핑을 진행하겠다고 약속했다.

무안=윤준명 기자